11강 유하와 소비사회

1. 유하와 『소비의 사회』

1.1 보드리야르의 『소비의 사회』

◇ 보드리야르의 전망은 암울하기만 하다.

◇ 실천 불가능한 것들만 있다. → 혁명적 주장

1.2 유하

◇ 시집『바람 부는 날이면 압구정동에 가야한다』의 시인이자 영화감독

◇ 거대담론에 빠져 있던 80년대시기에 소비사회를 벗어나는 꿈을 꾼 시인

2.『바람 부는 날이면 압구정동에 가야한다』

2.1 거대한 수정 샹들리에 속에 갇혀 있는 우리

아트앤스터디 www.artnstudy.com

◇ 소망교회 앞, 주 찬양하는 뽀얀 아이들의 행렬, 촛불을
들고 억센 바람 속으로 걸어간다 태초에
불이 있나니라, 이후의-

칠흙의 두메 산골을 걸어가다 발견한,
그 희미한 흔들림만으로도
반갑던 먼 곳의 등잔불이여

불빛을 발견한 오징어의 눈깔처럼
눈에 거품을 물고 돌진 돌진

불 같은 소망이 이 백야성을
만들었구나, 부릅뜬 눈의 식욕, 보기만 해도 눈에
군침이 괴는, 저 불의 뷔페 色의 盛饌을 보라
그저 불밝히기 위해 심지 돋우던 시절은 지났다

매서운 한강 똥바람 속,
촛불의 아이들은 너무도 당당해 보인다
그들을 감싸고 있는 이 도시 전체가
하나의 거대한 수정 샹들리에이므로

風前燈火, 불을 키운 것은 팔 할이 바람이었다
이젠 바람도 불과 함께 놀아난다
휘황찬란 늘어진 샹들리에 주위에 붙은 똥파리

불의 소망 근처에서
불의 구린내를 빠는 똥파리의
윙윙 날개 바람

바람 속으로 빽이 든든한
촛불들이 기쁘다 구주 기쁘다
걸어간다, 보무도 당당히, 오징어의 시커먼 눈들이
신바람으로 몰려가는, 불의 뷔페 파티장 쪽으로
-「바람부는 날이면 압구정동에 가야 한다4: 불의 뷔페」『바람부는 날이면 압구정동에 가야한다』

◇ 유하의 시집『바람부는 날이면 압구정동에 가야한다』(1991)에서는 소비사회 속에서 자라난 도시인과 그곳을 벗어나려는 몸부림을 읽을 수 있다.

◇ "눈앞의 저 빛!/찬란한 저 빛/그러나/저건 죽음이다/ /의심하라/모오든 광명을!「오징어」"

→ 오징어와 오징어잡이 배의 관계는 도시인과 자본주의의 관계로 치환 될 수 있다.

◇ 대도시의 불빛은 사람들 간 서로의 모습을 확인 시켜주는 역할이 아닌 화려한 샹들리에로 잡아끄는 역할만 하고 있다.

아트앤스터디 www.artnstudy.com